‘물방울 화가’로 널리 알려진 김창열 화백의 주옥같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곳, 제주도립 김창열 미술관은 제주시 한경면 저지문화예술인 마을 문화 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 1층의 연면적이 1587m²로 규모가 큽니다. 이 미술관은 2016년 9월 24일에 개관하였으며, 김창열 화백의 업적을 기리고 세계 현대 미술 발전에 도움이 되는 작품들을 수집, 연구, 전시하고 있습니다.

김창열 화백은 6·25전쟁 때 1년 6개월 동안 제주도에 머물며 작품 활동을 한 이후, 이곳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현대 미술 가인 김창열 화백은 초기에는 추상화를 그렸지만, 1972년부터 물방울을 작품의 소재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물방울 화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1961년 파리비엔날레와 65년 상파울루 비엔날레에 출품하고, 69년 파리 아방가르드 페스티벌에 참여한 이후 프랑스 파리에 정착했습니다.1972년에는 전위미술 전시회인 살롱 드 메(Salon de Mai)에 ‹밤의 행사›를 출품하며 유럽에서 데뷔했습니다. 대표작으로는 ‹기억›, ‹물방울의 형태›, ‹물방울의 자욱›, ‹해체› 등이 있습니다.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월림리 115-2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용금로 883-5

매일 09:00 ~ 18:00

매주 월요일 정기휴무

064-710-4150